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울산		천안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1.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524.3511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2013.06

한국YWCA

이달의 생각
진정한 대안은 어디에

이달의 현장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거리캠페인

평화의 여정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화해가 넘치기를

오늘의 여성
우리,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미래 HER FUTURE



나무는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사랑의 진리를 말하는 듯합니다. 만약 나무가 “내가 얼마나 힘들여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인데, 헛되이 공중으로 날려버릴 수 없다.”라며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이내 말라죽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깊은 땅 속에서 여린 솜털 같은 뿌리들이 바위와 자갈들을 헤치며 물을 찾아내고, 좁은 물관으로 킁킁대며 끌고 올라온 물이지만 아낌없이 잎을 통해 날려보낼 때, 맑고 신선한 물을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이들이 사랑을 갈급해하면서도 참 사랑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는 이가 복되다는 것은 하늘의 진리입니다.

우리도 나무처럼
함께 나누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 병 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_ 진정한 대안은 어디에 | 함희경
- 05 월레아침기도회 _ 예수의 마음을 배우다 | 김기석
- 06 이달의 현장 ① _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거리캠페인
- 08 이달의 현장 ② _ 한국YWCA 인터넷방송국 5기 아나운서 방송을 마치며
- 10 현장의 소리를 찾아 _ 안양Y 옥상 태양광발전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명회 | 박동순
- 12 생명 씨앗 _ 제2차 YWCA 생명포럼
- 14 생명 이야기 _ 765kv 송전탑으로 고통과 눈물을 보내선 안된다 | 이윤숙
- 16 평화의 여정 _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화해가 넘치기를 | 캐서린 재퍼츠 소리
- 18 돌봄협동조합 _ 고령화 사회 노인 문제, 조합원 스스로 고민하며 풀다 | 안정희
- 20 오늘의 여성 _ 우리,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미래 HER FUTURE | 최윤영
- 22 YWCA와 사회 _ 국민일보 5월 기사 모음
- 24 키다리 _ 세상을 향한 희망의 날개짓 YWCA 키다리
- 26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_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정의운동 | 최만자
- 28 문화가 산책 _ 신간소개
- 29 고(故) 박영숙 선생님 추모
- 30 연합회 소식
- 31 회원YWCA 소식



표지이야기

5월 25일 남산공원에서 서울YWCA 2013 시민건강걷기축제가 열렸습니다. Y회원 가족, 친구, 시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과 질어저거는 푸른 잎사귀들 사이로 걸으며 생명을 호흡하였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Y-틴 청소년들의 환한 미소를 더욱 밝게 만들어 줍니다.

사진: 고은경
(서울Y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

진정한 대안은 어디에


글 | 함 희 경 (연합회 실행위원)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과 할아버지가 불끄기 전쟁을 한다. 특히 아침시간이면 전쟁의 정점을 찍는다. 어둡어둡한 이른 아침 등교준비를 하는 아이들과 나는 바쁜 마음에 마루 전등을 켜고, 부엌의 불을 켜고, 아이들 화장실 불이 켜질라 치면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 내가 있는 부엌의 전등만 빼고 모조리 끄시고 가족 모두가 지나다니는 마루 창가에 앉아서서 조간신문을 희미한 햇빛에 의지하여 읽으신다. 텔레비전을 시청하실 때도 모든 전등은 꺼져 있어야 하며 다른 전기코드는 플러그에서 뽑혀 있어야 한다. 솔직히 절약하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요즘 아이들로서는 밝게 밝혀진 곳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렇듯 에너지 절약이 몸에 배인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 되어버렸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사고를 일으키면서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된 지 이 년이 넘는 요즘을 연일 뉴스를 통하여 우리나라 내의 원자력발전소의 원전사고 발생 시 원자로의 냉각 등 안전계통에 동작신호를 보내는 위조부품의 사용과 시험성적서 위조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를 통하여 그것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한 나라를 피폐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소 건설을 밀어부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생활을 풍요롭고 안락하게 만든다는 미명 하에 ‘핵’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감소하면서까지 의존해야만 하는 에너

지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올초 북한에서 원자로를 가동시키고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공포에 떨었던 일이 기억난다. 혹여나 전쟁이 날까 마트에 물과 즉석조리된 밥이 동이 날 정도로 식료품 사재기를 할 만큼 핵폭탄, 핵미사일 등 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무서워서 별벌떼는 우리가 어찌서 그것들과 같은 우라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에는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월성 원전 1호기를 부품만 교체하여 수명을 연장 할지라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처럼 연장 가동 중 사고를 맞을 수 있는 것이고, 태풍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어떠한 과학자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인류를 자멸시킬 수 있는 원자력발전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최종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원자력발전이 아닌 대안 에너지로서의 수력, 풍력, 태양열발전 또는 어떠한 친생태계적인 종류의 대안 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안에너지로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필요하다.

“돈을 주고 하늘을 살 수 있던가! 돈을 주고 강을 살 수 있던가! 돈을 주고 봄을 살 수 있던가!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던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라고 인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자연을 훼손하고 먹지도 않을 들소떼를 총으로 쏘서 죽이던 백인들에게 연설하던 100년전 시애틀 추장의 나직하면서도 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예수의 마음을 배우다


글 | 김 기 석 (청파감리교회 담임목사)

마가복음 1:9~15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층위의 뜻이 담겨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어, 다른 이를 배려하며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음을 뜻하기도 하고 실존적 과제로서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내 얼굴을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형제, 자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역사 속에 살고 있다. 창세기를 보면 전제가 갈등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 성서 기사는 갈등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삶의 기본 정조는 ‘불안’ 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의 대응물을 만들면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빈 구멍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다 보니 인생이 어려워지고 있다.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 욕망은 끝이 없기에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고 살아남으려다 보니 폭력이 일상화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기를 강화한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마음은 거칠어졌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이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예수

속에서 기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 만났던 사람들은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성경은 예수께서 ‘민망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한다. 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셨다. 예수께서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속에서 기뻐하신 마음이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마음이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모두 잃었다. 고통 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연루될까 두려워 외면하려 한다. 형제의 이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무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웃의 범주를 규정해주시지 않고 “고통 받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바꿔 질문하셨다. 인간의 인간됨은 누군가의 이웃,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때 형성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강도 만난 또 다른 이웃, 자연세계도 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좋으셨다고 하신 이 세상이 인간이라는 강도를 만나 황폐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연세계의 절친한 이웃이 되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불편을 즐겁게 선택하는 능동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결핍된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그릇을 작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갈 때 오히려 삶이 든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YWCA는 바로 이러한 일을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세상 도처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빈곤하지 않다. 그들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가 절친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만이 아니라 다른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가정의 달, 북한어린이에게도 사랑을 전해 주세요!



한국YWCA북한어린이돕기 모금사업단은 5월 15일 명동 한국YWCA연합회 회관 앞에서 ‘북한어린이돕기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가정의 달-북한어린이와 함께 해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국YWCA는 5월에 우리 아이, 우리 가정을 넘어서 한민족이자 함께 살아가야 할 통일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품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기 위한 취지에서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명동의 직장인들과 수많은 관광객들이 맛있게 풍요로운 점심을 먹으려 분주하게 걸어가는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북한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 전시와 북한전통음식 두부밥 제공도 하였다.

이날 많은 시민들은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후원을 하고 북한어린이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만든 두부밥을 맛보이기도 하였는데, 북한 대표음식 중 하나인 두부밥은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잘 버텨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한 영

양식이다. 북한어린이 사망 원인의 3분의 1이 영양 부족이고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발육저하를 겪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알고 두부밥을 맛본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하였다. 특히 이날, 명동을 둘러싼 수많은 상가 카운터에 북한어린이돕기 우유팩 저금통이 놓여져, 상점 주인들은 저금통이 가득 차면 YWCA로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고, 한양대학교회 성도들은 분유모금을 위해 수세미 제작 판매 수익금과 재능기부로 브로치를 제작한 판매 수익금을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전달해 왔다. 마침 이날 교회여성연합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네팔YWCA 사무총장과 설립자가 한국YWCA연합회를 방문하여 캠페인을 보게 되었다. 빈곤국인 네팔에서 가난이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네팔Y 사무총장이기에 북한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였다. 명동 구경을 나온 외국인 관광객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 남성 직장인은 “빨리 통일이 되어야죠. 북한어린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라고 동참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은 북한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리고 돕기 위한 모금에 일차적 목적이 있으나, 이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북한어린이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다. 그렇기에 북한어린이들을 위한 평화의 여정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다. (정리: 편집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

북한의 실상

지난해 북한은 극심한 봄 가뭄을 겪으며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였다. 다행히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서 농작물 작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북한 주민 10명의 1명 꼴인 280만 명은 끼니를 거르는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북한이 곡물 수입을 늘리든가 국제 사회가 대북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매년 초 대규모 식량을 지원해오던 북-중 식량 지원 논의도 지연되고 있어 식량난 타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에서도 어린이와 임신부는 배급 우선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미 배급이 끊긴 상황이라 기댈 곳이 없다.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섭취 영양에 따라 건강과 지능, 발달능력, 생명력이 좌우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아이들은 대를 이은 굶주림과 질병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어린이들의 기아 상태는 기아 4단계로 아프리카 나라들과 비슷하게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할 때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국내의 손길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린이일 뿐, 정치적인 대상은 아니다.

한국YWCA 평화운동

한국YWCA가 평화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해방 이전 북한에 존재했던 8개 지역의 YWCA 중 평양, 함흥, 안주, 선천, 신의주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와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전국 회원 회비의 일정액을 북한Y 재건 기금으로

적립하기 시작했다. 한국Y는 통일 이후를 바라보며 현재 북한 안주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997년 북한어린이들에게 25톤의 분유 전달을 시작으로, 꾸준한 지원이 이어져 2010년 9월에는 분유 3천여 통, 2011년에는 4톤의 분유를 보내 안주지역 소아병동, 어린이집, 고아원 시설 1만 4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지원했다. 2012년부터는 교회, YWCA 부속시설 등과 연합하여 북한어린이돕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북한어린이 한 명을 식탁에 초대한다는 의미에서 그 금액을 저금통에 모아 모금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한 명을 영적으로 입양해 기도로 돕고 있다.

협력교회 사례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운동 협력교회로 참여하고 있는 정동제일교회는 올해부터 어린이 주일을 ‘북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주일’로 선포하고, 지난 5월 5일에 전 교인이 참여하는 어린이 주일 모금을 시작했다. 송기성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당신의 뜻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이고, 더 열심히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전 교인이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포성광교회는 북한의 한 아이를 한 가정에서 영적으로 입양하는 운동으로 북한어린이 분유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궁정교회 서초신동교회 광주빛과사랑교회 반석교회 송현제일교회 우이제일교회 한양대학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협력교회로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재능기부로 모은 수익금을 전달하는 한양대학교회 선교부원



북한어린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작성한 네팔Y 사무총장

매일 오후 두 시는 사랑입니다



청년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청년성을 키우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YWCA 인터넷방송국(YWBS)에는 현재까지 약 25만 명의 시청자가 다녀갔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5기 아나운서 방송이 5월 마지막 주로 막을 내렸다. 지난 5개월의 여정을 마친 아나운서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정리: 편집실)

김혜림 월요 아나운서



처음 방송을 시작하며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시청자들의 냉담함에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너무도 따뜻했던 시청자들의 반응과 찬사에 두려움

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할 내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에너지를 얻기까지 하였다. 나중에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말들을 주중 내내 되새기며 방송에 이런 말을 해볼까 저런 말을 해볼까 대본을 하나씩 손보며 방송이 있는 월요일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나에게 있어 YWCA 방송을 말하라 한다면 한마디로 '따뜻한 봄'이었다. 지난 5개월 동안 방송을 하며 불안하고 지쳐있던 마음을 말갱게 씻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고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Y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뿌듯하다. 앞으로 날로 성장하는 Y방송이 되기를 바라며 이곳에서 얻었던 소중한 마음 가지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또 더 나은 세상을 향해 Y의 정신을 전파하고 싶다. 그동안 Y방송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이어질 6기 방송을 기대한다. 6기 아나운서 화이팅!

이유경 화요 아나운서



YWCA 방송국 아나운서 합격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고서 첫 방송을 앞두고 있을 때 일주일 전부터 원고를 쓰다 전

전날부터는 아예 온종일 방송 대본에만 매달려 2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작성했다. 처음 앉아보는 방송실에서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하였는데 벌써 방송을 마치게 되었다. 방송을 모두 끝낸 지금, '감사함'의 여운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데, 바로 Y방송을 사랑해주는 시청자들에 대한 감사다. 채팅창을 통해 하나하나 남겨준 지적과 조언은 앞으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거름이 될 것 같다. 처음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전면 개편하고, 방송도 점차 늘면서 3주째부터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즐길 수 있었다. 마지막 한 달은 취업과 갑작스레 도전한 미인대회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방송을 하면서 때로는 당황스러운 질문도 받고 힘겨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일들을 추억으로 남겨졌다.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나는, Y방송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사랑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지 알 수 있었다. 이제 Y방송은 끝났지만 Y와의 인연도, 내 꿈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서 멋진 아나운서로 다시 만나고 싶다.

한지이 수요 아나운서



Y방송에서 첫 발을 내딛는 일이란, 호기심과 상상력을 영혼의 소리로 쓰고 알리는 일이었다. 2012년부터 해온 서울 YWCA 대학협의회 회장과 세계 Y 회의에 정대표로 다녀오면서, 또 다문화 멘토링 르네상스 창설과 현재 이화Y 회장으로 YWCA의 알리미 YWBS 방송에 도전해 좀 더 가까이 세상과 소통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다. 지난 5개월간 방송을 통해 소통하며 희망과 자신감을 배웠고 '아는 것이 힘'이 아닌 '경험하는 것이 힘'이라는 특별함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또한 '참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준 YWBS에서 숨은 힘과 지혜를 배우고 간다. 나에게 노력의 과정은 늘 즐겁게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즐거운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진실로 방송을 대하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였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이 바로 길이다. 그것은 마치 희망이란 본래 있었고도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길을 만들면 그 희망은 곧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대학시절의 뜻 깊은 경험이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유연하게 해, 팍팍한 세상에서 나의 마음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고의 보루가 되어 준 YWBS. 언제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힘! 세상과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큰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민정 목요 아나운서




5기 아나운서의 활동은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지난 5개월간 Y방송을 사랑해주는 시청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넓은 세상을 배우게 되었다. 방송을 마친 지금,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Y방송의 가장 큰 강조점은 '소통'에 있었는데, 부족하나마 시청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방송을 통하여 '소통'과 '공

감'의 무한한 가치를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YWCA의 생명 가치를 방송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캠페인으로 바꾸어 진행하였는데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시청자를 아끼고 시청자가 나를 아끼는 것과 같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짧은 5개월 동안 평생을 통해도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함만 가득하다.

김정우 금요 아나운서



지난 5개월 동안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매주 금요일 두시는 친한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랑 나이가 똑같지만 벌써 아이 세 명을 키우고 있는 주부 시청자들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현실에 공감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나는 그들의 생김새, 사는 곳을 모르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약속을 한 것처럼 만나서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

수십 명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나만의 이야기, 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방송의 주인으로서 다양한 시청자와 대화하고 그들을 증재하며 이끌어나갔던 경험은 24년을 살면서 가장 마음에 깊게 남은 리더로서의 역할이었다. 또한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다. 1년 뒤에 나는 방송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직장인이 되어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한국YWCA에서 경험한 아나운서 활동은 순발력과 재치를 키우고 무대에 대한 자신감, 의사소통을 하는 법 등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활동이었다. 조금 더 당당해지고 방송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준 YWCA는 대학생으로서 내가 일한 첫 직장이었다. 첫 직장을 시작으로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르는 2013년의 '나'를 기대한다. 

착한에너지 태양광을 우리 옥상에

글 | 박동순 (안양Y 사무총장)



안양Y는 수익형 태양광발전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안양Y 옥상태양광 발전사업(RPS)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탈핵 실천 에너지 운동'이 YWCA 중점운동으로 채택되면서 안양Y 또한 구체적인 실천에 한 발짝 다가서고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YWCA는 아나바다운동으로 대표되는 생활 속 환경운동을 이어왔고 이제 '탈핵'이라는 이슈를 통해 에너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전기를 '소비'하는 것에 익숙한 환경 속에서 콘센트를 뽑고 절전하는 '소극적'인 운동을 해왔다면, '탈핵'이라는 이슈는 '탈핵' 이후의 우리 삶의 양식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하는 과제를 함께 고민하게 했다. 이러한 출발선상에서 안양Y는 보다 적극적으로 YWCA의 환경운동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YWCA의 '목소리(프로그램)' 뿐 아니라 YWCA '살이(운영)'까지도 그에 맞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0년이 가까운 안양Y회관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Y 지도자들의 피눈물과 기도로 받은 선물이기에 부족하고 낡은 건물이지만 늘 가슴이 아린 공간이다. 새로이 건축한 Y회관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은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때문에 건물을 Y운동에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건물에 맞춰 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던 차에 '탈핵'이라는 운동중점 채택은 보다 지금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중에 생각하게 된 것이 '태양광발전사업'이다. YWCA 생명운동을 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서 개인의 실천뿐 아니라 대안에

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외형적인 건물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설레었다.

현재 전기사업의 구조는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두고 발전설비용량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들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발전사업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포스코에너지 등으로, 의무할당비율은 2011년 2%에서 2012년 2.5%로 높아졌고 정부는 2020년까지 10%로 높일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는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 (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부터 발효되면서 본격화된 전 지구적인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Y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자체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발전사업자로서 에너지를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안양Y에서 우선 검토하는 방안은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RPS사업을 통해 대형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서 전기를 매입하도록 할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중 7-8%정도는 태양광에너지로 채우도록 되어있다. 이와 함

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REC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인 증서를 입찰을 통해 조건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매입하는데, 일반 대지에 있는 태양광시설인 경우에는 70%, 건물 옥상 활용 시 150%의 가중치를 적용해 다시 사들이게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현재의 태양광사업 조건상으로는 최소한 시중금리보다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많은 15-20%까지로 보는 경우도 있었음) 재테크의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동호회들이 생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만큼이나 이 모델이 Y운동의 의미를 살리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Y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안양Y로서는 과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임차해있던 건물이 IMF 금융위기당시 건물주 부도로 전세금이 손실되면서 센터 사업을 유지·운영하기 위해 안양Y의 6층 회관 건물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입주하여 총 5층을 사용하며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회관 안에 원래 한 층을 사용하고 있던 가정폭력상담소도 본부와 같은 층으로 옮겨 일부 공간을 나눠 쓰게 되어 건물이 포화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 선점을 위한 실무자들 간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Y회관이 고도제한 지역에 있어 증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다른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뾰족한 방법을 못 찾은 채로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있던 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시설을 지붕형태로 옥상에 패널을 씌우면 옥상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매력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55평 규모의 안양Y 옥상의 공간만큼을 얻기 위해서는 인근 건물의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공간의 이점은 상당하다는 생각이다.

안양Y는 YWCA 생명운동, Y다운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 안양Y의 숙원과제인 프로그램 공간 확보, 이 세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 볼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2012년 11월에 '사업방향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임원 위원장단 연수'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이후 올해 총회를 마친 뒤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업체들을 만나 견적을 받고 자문을 받으면서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지난 5월 14일에 이사, 위원, 실무자들이 함께 모인자리에서 '안양Y 옥상태양광 발전사업(RPS)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지원금을 통해 시설투자비를 지원받는 경우 생산된 전기는 자체전력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사업을 위해서는 자체경비로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Y로서는 기초투자비만큼 수익성을 거둘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하는 문제여서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 경기도나 안양시에는 민간의 태양광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는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로 원자력, LNG,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태양광사업의 향방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원자력에너지의 발전단가에 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과 환경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까지 합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비용이 발전단가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원자력을 홍보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다. 정부정책이 원전확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점이다. 안양Y는 금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내용과 정책적인 변화를 지켜보면서 사업의 향방을 정할 예정이다.

전국Y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안양Y를 비롯한 전국Y 옥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을 착한에너지로 만들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상의 생명감수성 다지기

지난 5월 30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2차 YWCA 생명포럼이 열렸다. '일상의 생명감수성 다지기'를 주제로 박경미 교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의 '마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 김명희 박사(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정책부장, 의사, 보건학 박사)의 '장기이식 등 의료영역에서 생명과 몸의 문제'로 주제 강연을 하였다. 이후 모듬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경미 교수는 '핵 문제'를 중심으로, 삶과 생명의 문제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박 교수는 2011년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하면서 신학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핵 발전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을 내놓았다. 첫째, 핵 문제가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 둘째 핵은 기독교적으로 죄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오만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민주주의와 핵 발전은 양립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였다. 최근의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보면, 이는 큰 관점에서 대도시와 지역(농촌, 벽촌지역) 사람들 사이의 평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대도시에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시골 벽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또 문제로 지적한 것은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에는 지역 뜨내기나 일용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사회가 계급적 차별(양극화)이 심각한 사회가 아니라면 누가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그런 일을 하겠는가. 우리는 사회 최하층민의 희생에 근거해서 값싸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핵 발전은 은폐주의, 비밀주의에 근거하는데 이 또한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핵 발전은 현재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생명을 당겨쓰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민주주의에 위배됨을 지적하였다. 핵 발전의 근본적 문제는 핵폐기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도 계속 핵 발전을 지속하는

것은 현재의 풍요와 편리를 위해 이 문제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하다. 이어 박 교수는 핵 발전은 기독교 관점에서 죄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오만함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왜소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자신의 머리로 상상하고 예측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절대시켰을 때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후쿠시마는 분명히 보여준다.

인간의 도덕적, 과학적 인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원자력 역사를 보면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언젠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한 과학의 진보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들은 방사능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을 실행했던 것이다.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확실히 보이는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라고 착각했거나, 아니면 과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방사능으로 인한 폐해를 곧 해결해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알 수 있음'을 개인적, 집단적 행동의 근거로 삼는 것이야말로 현대명명의 밑바닥에 있는 오만이며, 종교적 언어로 말하자면, 죄이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가 앞 못 보는 소경을 고쳐 준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보지 못하는 것', 즉 인간의 '알지 못함'은 죄가 아니라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주장하고 거기 근

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죄임을 지적하신다. 박 교수는 인류의 15%만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희생된 삶을 사는 지금의 시스템을 생각해보고 '행복',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음을 역설하였다.

이어 '장기이식 등 의료영역에서 생명과 몸의 문제'로 김명희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김 박사는 장기이식을 통하여 생명을 나누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언제 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생명을 키우고 보살피는 여성 역할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970년대 뇌사 개념의 도입으로 뇌사자로부터 장기기증이 가능해지면서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논의는 주로 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90% 이상의 장기이식이 살아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생각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비록 장기 기증자들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건강한 일반인일지라도 그 수술이 갖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내포한다.

장기적출 수술은 원하지 않는 후유증을 기증자에게 남기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이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한 선행이기도 하지만 기증자들에게는 때론 악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장기이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윤리적으로는 인체를 물질화해서 그것을 남용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문제, 인체를 상업화하면서 얻게 되는 이득의 문제, 기증자의 자율성의 문제 등이 있고 의학적으로는 감염성 질환의 전염 및 전파, 암 등 유전적 질환의 전이, 사용되는 인체의 질적 문제 등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기증자의 피해(기증자의 생명보험 가입 거부, 취업신체검사 불이익),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기회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의료에 있어서의 여성의 문제가 심각한데, 장기기증을 받음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는 남성보다 굉장히 열



악하다. 그리고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여자가 더 많고, 받는 사람은 남자가 더 많은데, 여성학적인 사회학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생각해볼아야 한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장기이식에서 그들은 쉽게 기증을 받지 못한다. 또 함께 생각해볼아야 할 것으로 인체의 기증 받은 일부를 미용목적으로 쓰는 것, 그것을 취급하는 회사가 이득을 보는 것의 문제, 연골, 혈관 등을 포장해놓았다가 사람의 일부를 사고 파는 문제들도 생명과 윤리적 관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볼아야 한다.

김 박사는 장기기증자들의 행위가 사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으로 인하여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기증 후에도 그들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강연 이후, 생명의 의미와 생명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듬별 토의를 하였다. LED 등으로 교체, 쓰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 핵발전소 추가 건립 반대, 기준 미합격 핵발전소 폐쇄 의견 개진, 외모지상주의 인식이 만연한 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2차 생명포럼은 '일상의 생명감수성 다지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생명 가치를 위협하는 우리 삶의 위험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과 다짐들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정리: 편집실)

765kv 송전탑으로 고통과 눈물을 보내선 안된다

글 | 이윤숙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밀양의 오랜 눈물

지난 5월 29일, 국회는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갑작스럽고 무자비하게 강행되었던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40일 동안은 산을 파헤치는 포크레인과 전기톱의 굉음도, 힘에 겨운 젊은 용역과의 몸싸움도 사라진다. 그리하여 오랜 저항에 지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고단하고 여윈 몸을 잠시 쉴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것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잠정적 합의일 뿐이지만, 그동안 밀양 주민들, 대다수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 그들이 치러낸 처절하고 외로웠던 싸움들이 드디어 전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밀양주민들은 참으로 많은 고통과 희생을 치르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 지난 8년간 밀양 주민들은 누대로 살아온 고향, 몇십 년을 정성들여 가꾸어온 논밭, 식구들과 함께 사는 집과 자식들 다니는 학교 위로 76만5천볼트의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왔다.

그러다가 작년 1월, 평생 아우와 함께 가꾸어온 논 위에서 이치우 할아버지가 자신에 몸을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청계천의 가난한 노동자 전태일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으로 소리쳐야 세상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절박하고 비통한 몸부림이었다. 밀양 주민들은 처음엔 국가가 하는 일이니 국민으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곧 흔히 볼 수 있는 154킬로볼트

송전탑보다 18배나 강한 765킬로볼트 송전탑이 못생명들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는 전자파를 내뿜는다는 것을 알았다. 소위 전문가의 견해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토지수용과 보상책들, 밤낮없이 불야성 속에 평평 써대는 대도시의 전기 수요를 위해 이 작은 마을에 희생을 강요하면서 원거리 고압 전력 수송을 정당화하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건설 예정인 신고리 3~6호기 핵발전소들이 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줄줄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강행된 공사에 밀양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몸으로 저항하는 일뿐이었다. 나무가 베어져 나가 그늘도 하나 없는 불별 더위 속에서 포크레인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알몸으로까지 저항했다. 언제 올지 모를 공사 용역들을 막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칼바람 부는 혹한 속에서도 새벽같이 산을 올라야 했다.

산리즈카, 칩코 그리고 밀양

지난 5월 24일 긴급밀양탈핵희망버스를 타고 도착한 밀양은 칠흙 같은 어둠 속에 긴장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전이 급작스럽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16명의 노인들이 쓰러진 후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대를 위해 내려간 그 시간은 이미 자정이 넘었지만, 일행들은 겨우 두세 시간 잠이라고 할 것도 없는 선잠을 자고 공사현장으로 가야 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터라 동이 트기 전에 산을 올라야 했던 것이다. 다행히 탈핵희망버스 지

원단을 의식한 것인지 어떤 공사 강행도 물리적 충돌도 없었지만, 곳곳마다 배어있는 밀양 주민들의 뼈저린 한숨과 눈물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 6월 한전이 공사방해를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장을 이 힘없는 주민들 가슴팍에 날렸을 때, 할매들은 “이 할매는 욕심 없습니다. 오직 요대로 살다가 죽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외쳤다. 할머니들은 손자와 같은 나이의 젊은 용역들 앞에서 웃옷을 벗고 저항한다.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고 유서를 쓰고 목을 매 죽을 바랄까? 대령 대령 매달아 놓고 “아이고야, 정말 어찌 이리 국민을 천하게 여기노.”라고 몸부림치신다.

나는 이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음을 각오한 싸움이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은 어떨 때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 죽음으로써 삶을 지키는 역설은 대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걸까’ 라고. 나는 그저 ‘생명이 소중하다’ 는 당위가 무너지면서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생명 파괴의 현장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쇠사슬로 온몸을 묶고 저항하는 밀양 주민들의 모습에서 언젠가 1960년대 일본 나라타공항건설 반대투쟁을 다룬 오가와 신스케 감독의 다큐멘터리 속 산리즈카 농민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도 밀양 사람들처럼 쇠사슬로 온몸을 묶고 땅에서 뿌리 뽑히지 않겠다고 버티고 버티었다. 결국 나라타 공항은 들어섰지만 그들은 무려 40여 년이나 저항을 계속하여 결국 토지강제수용과정에 대한 국가의 사죄와, 이후 국가 개발사업에서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겠다는 동의, 그리고 2기 공항 공사를 백지화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뿐만 아니다. “그렇게 다 잘라내고 나면 너희는 뭘 기대고 살래?” 라고 공사 용역들을 향해 외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온몸으로 숲의 나무를 껴안고 으르렁대는 전기톱과 도끼에 저항한 인도 히말라야 칩코운동의 여성들 모습도 함께 보았다. 숲에 기대어 숲과 더불어 삶을 일구어왔던 그

녀들은 “나무를 베려면 나의 등에 도끼질을 하라”고 외치며 끝내 풍요로운 숲을 지켜냈다.

약자를 희생시키는 시스템을 넘어서

밀양 송전탑 문제는, 원전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신문을 장식하는 ‘전력공급 차질 우려’ 라는 단어 속에 ‘어쩔 수 없는 일’ 이거나 ‘지역이기주의’, 혹은 ‘님비’ 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수도권 시민과 공장들에 무한하게 전력을 공급한다는 넌센스에 가까운 전제가 깔려있다. 모든 생활을 전기화해 갈 정도로 평평 써대는 전기 수요를 위해 비리 투성이인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머나먼 대도시로 실어나르기 위해서 한 지역의 공동체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희생이 언제까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할까. 도시의 안락함과 편의를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고 배제하면서, 그것이 국익이며 성장이라며 강요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이제 밀양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 그들이 흘린 피눈물도 닦아주어야 한다. 기존 송전선의 용량을 늘려 기존 선로로 송전하는 방안이나 우회노선을 모색하는 방안, 지중화 방안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검토되고 합의될 수 있다면, 경제 논리와 법리만을 내세워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넘어서 조금씩 정의, 그리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스스로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할 일은 약자를 배제하고 타인에게 폭력을 가해서 얻어지는 안락함, 풍요, 성장이 과연 좋은 것이며 편한 것인가 하는 질문일 것이다. 우리는 과연 그 시스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성찰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희생의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키우는 일일 것이다. 그것이 아마 요즘 한낱 유행하는 인문학 교양이 아니고 생명 위기의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교양일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화해가 넘치기를

글 | 캐서린 재퍼츠 소리 (성공회 수석 주교)



남북의 긴장된 분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열리게 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독교인 대회'가 지난 5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미국연합감리교회(UMC)를 중심으로 미국 내 10여 개 기독교단이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 성공회대학교 이재정 교수, 연세대학교 노정선 명예교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조훈정 목사 등이 참여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더불어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무기 경쟁의 종단을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며,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였다. 더불어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무기 경쟁의 종단을 촉구하였다.

6월 월간에서는 주요 발제 가운데 평화와 화해에 대한 강력한 호소로 기독교인대회에서 큰 호응을 얻은 성공회 소리 수석 주교의 발제를 요약하여 실는다.

휴전에서 화해로

한국의 평화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모였습니다. 교회가 평화와 화해의 증진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 인지를 돌아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현 상황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제시할 만한 몇 가지 방도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세상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돌아보고 우리교회가 폭력과 군사력 그리고 전쟁이 범람하고 있는 이 때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역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통의 역사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를 나눌 때, 치유가 이루어짐을 압니다. 치유와 화해 그리고 지속적인 평화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일 때에 가능합니다.

통일을 향한 염원은 먹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과 평화롭게 살고 일자리가 보장되고 공포와 궁핍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휴전에서 화해로 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휴전에서 화해로 가면 한반도 전역에 평화가 자라고 성숙해진 사회가 되는 가운데 핵무기와 군사 문화의 위협을 종식하려는 열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위엄 있는 삶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와 자원들을 획득하는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치유된 거룩한 공동체로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먼저 화해를 염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본성과 예수님의 현존하심은 바로 공동체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밝혀 주십니다. 치유된 거룩한 공동체의 각 일원은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여 부름 받은 창조적 사역을 실천해 나갑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희망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치유된 공동체를 위해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 치유

된 공동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염원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치유되고 화해가 이루어진 나라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언어, 종족, 민족, 나라들에게 펼쳐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가난이 퇴치되고 강탈과 억압, 노예 제도와 식민 통치와 군사 문화와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역에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 평화를 막는 장벽을 깨뜨리는 지역 공동체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운동들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 인권을 향유하고, 가난의 재앙을 끝내는 길을 모색하고 군사 문화를 퇴치하고, 다른 공동체와 주변의 나라들과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데에 집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 운동은 세계의 다루기 힘든 분쟁 지역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운동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취약점을 대면하고, 그리고 난 후, 두려워하고 약한 상대방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발견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제외시킨 자, 곧 '타자' 들이 우리의 변영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의 변영의 삶에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공동체도 상품으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구원의 성취가 나와 타자의 하나됨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깔려 있는 두려움, 즉 다른 권력이나 사람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가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원수들에 파멸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지역 팽창주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협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이야말로 진정으로 평화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화해의 미래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는 바로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바로 두려움에 군사적으로 대항하는 방법 대신 비폭력적으로 접근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대응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여러 가지 두려움을 진솔하게 숙고하기 시작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북한이 그 인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왜 남한이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습니까? 왜 남한의 일부 지도자들이 부패 부정한 충동에 굴복합니까? 왜 미국이 계속하여 다른 지역들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용납하고 충동질에 굴복합니까? 왜 일본이 60년이나 지난 지금 위안부의 고통에 응당한 배상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근저에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가장 원하고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 땅이 부족하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회개하는 행동들을 지속시켜 주는 존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두려움은 생겨납니다.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풍요한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화해하시는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화해에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견고한 현실과는 다른 미래를 향한 열린 마음이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알 때에, 우리가 흠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 때,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을, 우리의 구원의 삶에 중요한 파트너로 맞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화해는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꿈꾸고 원수로 여겼던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갈 때에 이루어집니다. 남과 북이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하고 어울릴 때가 능성이 열립니다. 화해를 위해 절망의 참호들 가운데서 밖으로 나아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우리는 평화와 화해의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 문제, 조합원 스스로 고민하며 푼다

글 | 안정희 (은학의 집 부장)

한국YWCA 협동조합운동 관련부서인 연합회 돌봄과살림팀 위원과 시범회원Y, 연합회 협동조합 직원연구팀은 지난 5월 16일 협동조합연구를 위해 원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기관을 방문하였다.

한국 협동조합의 메카이며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원주를 방문했다. 원주는 신용협동조합, 의료생협, 노인생협, 한살림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총 19개의 협동조합 성격의 단체가 있으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라는 조직을 설립하여 연대와 협동조합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주의 협동조합 조합원 수와 회원 수를 합하면 원주 인구의 10% 이상인 3만 5천여 명에 이르며, 연 매출액도 260억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방문하게 되는 곳. 지난해 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방문자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2년 기준 약 100여 개의 단체 3천여명이 원주를 방문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원주협동조합사회네트워크, 의료생협, 노인생협, 노숙자 복지형 '갈거리 사랑촌', 다중이해협동조합 모형을 볼 수 있는 지역로컬푸드 카페테리아 '한그릇에' 협동조합이었다.

이중에서 특히 현재 한국YWCA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돌봄협동조합의 모형과 유사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노인생협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원주 노인생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생협이다. 노인생협은 노인당사자 조합으로 오로지 노인을 위한, 노인들에 의한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주 노인생협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를 노인 스스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2006년 9월 창립총회를 갖고 설립 인가를 받았다.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하는 조합'이라는 운영 형태를 가지고 누구나 1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1인 1표 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젊은이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운영 원칙을 가지고 젊은이들과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으며, 오히려 젊은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기피하는 틈새 일자리를 발굴하여 참여자들의 보수 증대와 지역 사회 봉사과 공공성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었다. 자립 목표도 정부, 지자체의 의존도를 탈피하여, 자립 지속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인생협이 처음부터 설립이 용이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 협동조합을 계획하고 노인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1만 원 출자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시는 협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 3천만 원의 출자금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결국 뜻을 같이하는 기부자들의 도움으로 초기 출자금은 거의 기부를 통해서 마련하게 되어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조합원 1,462명 가입, 출자금 6천8백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의 사업 규모도 커져서 사무실 2개소, 교육장, 식당운영, 차량 2대, 청소, 소독 장비 등을 구비하고 활동하고 있다.



갈거리 사랑촌 협동조합 소개 시간



원주 노인생협 소개 시간


현재 원주 노인생협은 사업을 통해 연간 3천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고, 배당보다는 재투자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12년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은 172명, 원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1,080명까지 합하면 약 1,200여 명에 이르고, 총액만 해도 13억 1천2백50만 원, 노인 일자리 15억 1천2백만 원 총 28억 이상이 된다.

노인생협의 주요한 사업은 청소, 소독·방역, 경비 등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뒷골목의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클린콜 사업단, 원주시 각급 학교와 기관 소독, 방역사업, 노인생협 경비, 학교청소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식당운영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은빛 택배, 상조사업도 연구하고 있다. 원주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생협이 주축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협조가 원활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속적인 취지 설명과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강조한다. 노인생협 참여자들은 거의가 국민연금을 제외(60세 이상이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자존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 활동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등산반, 합창단, 다양한 교육강좌 개설, 걷기대회, 체육대회, 단합대회, 야유회,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주 노인생협 박태진 이사장은 노인생협의 설립 목적문 첫 줄에 나와 있는 대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문제를 노인 스스로 풀고자...' 평범하지만 목적과 문제 제기와 주체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생협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라 말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김선기 사무국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법적절차나 아이টে이 매물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전에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과제를 위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공통의 필요와 열망들을 충족시킬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최초의 협동조합 영국 로치데일의 원칙에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들은 이런 목적이 외부의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달성될 것이라 확신했고... 대다수의 조합원에 의해 이루어지게 했다' (깨어나라협동조합, 김기섭, 128p) 협동조합의 설립은 결국 문제의식과 주체가 해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왜 협동조합을 고민하는가? 협동조합을 통해 누구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누가 어떻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가? 협동조합은 사람의 조직이다. 협동조합 설립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조합원, 바로 사람이라는, 그래서 한국YWCA가 더디지만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접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우리,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미래 HER FUTURE

글 | 최윤영 (연합회 국제운동팀 간사)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2015년 세계대회 개최를 앞둔 태국YWCA에서 ILI(International Leadership Institute)가 열렸다.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53명이 참가한 이번 ILI는 젊은 여성들이 Post-2015 개발 의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각국 정부가 여성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장이었다. 이번 ILI의 주제인 'HER FUTURE : The Future Young Women Want' 도 세계Y가 Post-2015를 준비하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과 같은 것이었다. ILI에서는 이 내용을 참가자들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젊은 여성 참가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하고, 2015년 종료를 앞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국제 개발의 아젠다를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 세계 YWCA들의 공통 목표인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Girls, VAW/G) 근절과 여성의 건강한 성과 출산에 대한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에 관해 공부하고 이러한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권을 보장받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펼쳐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VAW와 SRHR 관련 이슈의 주창운동(Advocacy, 애드보카시)에 집중하였는데, VAW와 SRHR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APWLD(Asia Pacific Women, Law and Development)

에서 활동하는 우미선 활동가와 ARROW(Asia-Pacific Resources & Research center for Women)의 활동가 사이(Sai)를 강사로 두 단체의 자세한 활동과 노하우, 어려움 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국제적 여성운동을 펼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을 배우고, UN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본 교육은 한국 국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학습의 방향을 확립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지역별로 모여 각국의 국가보고서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할 운동 이슈를 정하는 그룹토론 시간 또한 유익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약 14개 국가가 속해 있기에 보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세계Y에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태평양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한국은 대만, 태국 참가자들과 함께 동아시아 그룹에서 함께 토의하였다. 공통 운동주제와 방안은 '젊은 여성들의 경제적 평등 실현', '의사결정구조의 여성 참여율 증진', '여성과 소녀들을 향한 폭력의 종결' 이다. 이를 위하여, 향후 페이스북을 통한 운동 이슈 공유와 네트워킹을 활용한 탄원서 및 성명서의 배포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세계Y는 세계지역 토의에서 나온 목표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 회의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HER FUTURE YOUNG WOMEN WANT : A Global Call to Act

젊은 여성이 원하는 미래 : 지구적 행동요청

(출처 : 세계YWCA)

세계YWCA는 2013년 3월 5일, 뉴욕에서 열린 제57차 CSW(UN 여성지위위원회) 중 'The Future Young Women Want : Putting women's rights at the heart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세션을 열어, Her Future Young Women Want : A Global Call to Act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미래)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배경]

지난 15년 동안 국제원조개발을 지배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¹⁾이 2015년 만료를 앞두고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모두에게 남겨졌다.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부분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UN MDGs 보고서에는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끊임없는 성별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Post-MDGs(혹 Post-2015, 새천년개발목표 종료 후 성립될 새로운 국제개발 의제)의 의제에 직접 관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다. Post-MDGs를 위한 기본골조는 반드시 전 세계의 8억 6천만여명의 젊은 여성들, 빈곤과 굶주림, 건강 악화 등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 Post-MDGs 개발목표는 반드시 주요 인구의 요구와 자산, 열망을 담아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모은다면, 우리의 소리는 귀가 터질 듯 커다랗게 울려 퍼질 것이다.

[Post-2015 개발 의제]

'젊은 여성이 원하는 미래' 를 확정짓기 위하여, Post-2015 의제를 결정하는 UN, 각국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양성 평등 획득을 새로운 의제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성차별과 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한 자원 확충과 노력을 최대화하라.

b. 2030년까지, 세계의 젊은 여성들은 바란다:

1. 모든 형태의 여성들과 소녀들을 향한 폭력을 근절하고, 어떠한 폭력도 용인하지 않으며 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처벌을 종결한다.
2. 조혼과 강제 결혼의 근절, 여성할례(여성성기절제)를 포함한 해로운 관습을 타파한다.
3. 종합적이며 나이에 기초한 성교육을 시행한다.
4. 여성의 건강한 성과 출산에 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보편적이고 평등한 의료 접근성을 실현한다.
5. 효과적이고 자발적인 HIV 예방, 치료,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 의료 접근성으로 실현한다.
6. 건강과 다른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막는 법적, 사회적 방해물을 제거한다.
7. 초등학교와 중학교 소녀들과 소년들이 모두 학교 교육에 참여한다.
8. 양질의 직업과 경제적 기회와 더불어 재산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권리를 양성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9. 취약그룹을 포함한 젊은 여성들이 평화를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1)새천년개발목표 ①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근절 ② 초등교육 의무화 달성 ③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힘 증진 ④ 아동사망을 감소 ⑤ 모자보건 향상 ⑥ HIV/AIDS, 말라리아 등 여타 질병 퇴치 ⑦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⑧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조성

다양한 가족, 함께 하는 사회

YWCA연합회는 매주 목요일 국민일보 32면에 YWCA 운동 정신과 현장을 소개한다.

가정의 달 5월에는 '다양한 가족, 함께 하는 사회'를 주제로 YWCA 가족 이야기를 다루었다.

(정리: 편집실)

다양한 가족, 함께 하는 사회 5월 2일

1925년 YWCA 사회문제부 설치
교육 필요성 등 다양한 계몽 활동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개개인의 권리 회복에 앞장

50여년 동안 '가족법' 개정 운동
호주제 폐지 등 불평등 해소 '결실'
한부모 · 다문화 가정 문제 등
새로운 문제 해법 모색에 주력

한국Y가 지난 90년 동안 남긴 크고 작은 족적들은 한국 여성들의 삶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여성을 위한 활동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 속에 갇혀서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여성 개개인의 권리를 찾아주는 운동이었다. 조혼금지 및 축첩반대 운동은 가족 속에서 여성권리 찾기 운동의 서막을 열었다. 1953년부터 가족법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 호주제 폐지가 확정되면서 YWCA가 53년부터 시작한 가족법 개정운동이 최종적인 결실을 거두었다. 이로써 한국 가족법은 부모평등, 부부평등,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적인 가족법으로 재탄생되었다. 90년 동안 가족 안 여성권리찾기 운동을 주도해온 한국Y는 현 시점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과 애정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가족은 단지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자문해 보고 그 대안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YWCA 어린이집 5월 9일

1952년 부산YWCA 탁아소로 출발
1970년대 일하는 여성 늘어나고
조기교육 필요성에 설립 잇따라

성남어린이집 '창조질서 보전' 목표
환경지킴이 활동 통해 자연사랑 교육
올해 '생명사랑운동' 프로그램 시작

YWCA어린이집의 역사는 1952년 부산Y가 세계YWCA를 통한 구호금과 구호품을 가지고 탁아소를 운영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70년대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보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설립하였고 광주Y, 목포Y, 대구Y, 청주Y, 세종Y, 대전Y는 일하는 여성들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절 탁아소를 농촌지역에서 운영하였다. 또한 70년대 후반 이후 YWCA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수많은 어린이집 가운데 YWCA어린이집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에 차별성이 있다. 성남Y어린이집은 그 목적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Y가 만나는 세상/ 부산YWCA '어린이집 숲 체험'

부산Y어린이집은 1990년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았던 부산 장림2동에서 시범탁아소로 개원하였다가 이듬해 1991년 부산YWCA부설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았다. 그간

수차례 우수 어린이집 선정, 우수 시범기관 수상 등 평가인 증 획득 등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 부산Y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독교 생태교육 지향이다. 생명, 환경, 아이와의 만남이 있는 숲반을 운영하여, 주 3회,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숲에서 활동한다. 숲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놀며 생태순환적인 삶을 배운다.

YWCA대잇기 추진단 '대추' 김윤경 대구Y 증경회장 5월 16일

40대부터 사업 병행 활동하신 어머니
대구Y 회관 건립 위해 동분서주 활약
난 30대에 시작 'Y' 매력에 푹 빠져
며느리는 시집 오자마자 Y회원 등록
더 젊은 감각으로 가치 있는 업적 일굴 것

우리 집안에서 YWCA 1대 자원봉사자로 활약하신 나의 어머니 고 홍신숙 이사님. 1953년경 대구Y회원으로 활동하시다가 1963년부터 대구Y이사로 활약하셨고 1978년 70세 정년으로 명예이사가 되셨다. 당시의 Y활동인 여성해방운동에서 남녀동등권을 부르짖으셨고 교육현장에서 여아들을 배제시켰던 봉건주의의 잔재를 없애는 운동을 하시는 한편, 혼인신고 독려운동과 축첩폐지운동 등을 벌였다. 나는 여성을 위한 윗대들의 터뒹기에 힘입어 30대 전후로 Y활동을 시작했다. 뒷날 내 며느리 이선주(대구Y 이사)도 시집 오자마자 나의 Y 회원 모집 명단에 올렸음은 물론이다. Y에 발부침을 잘한 사람들은 Y.W.C.A 그 매력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보람 있게 활동한다.

Y가 만나는 세상/ 대잇기 추진단 'The 대추' 프로젝트

2012년 8월 18일 90주년 전국회원대회에서는 다가오는 100주년을 준비하는 'YWCA 90 to 100 프로젝트'가 마련되었다. 다름 아닌 'The 대추'. 대잇기 추진단의 줄인 말로 2대 이상 Y 활동을 이어온 가족을 발굴하고, 대를 이어 Y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을 키워 가는 프로젝트이다. 시모와


자부, 모녀관계, 조모-모-손녀, 이모/고모-조카-조카딸까지 다양한 가족 형태로 Y 정신이 이어진다. Y 활동이 계승되고 더욱 확장 발전함을 느끼게 된다.

한국Y, 북 어린이돕기 거리캠페인 5월 23일

어린이들 스스로 모금에 참여토록
저금통 나눠주고 기도 · 모금운동
또래 북 친구들 생각하며 나눔에 동참
평화통일 꿈꾸며 성장하도록 유도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물질적인 결핍은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문제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아 발생 원인에 환경적인 원인과 함께,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기아는 구조적 원인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원인을 안고 있다. 여전히 전체 북한주민 10명의 1명 꼴인 280만 명은 끼니를 거르는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지금 북한의 아이들은 대를 이은 굶주림과 질병의 악순환에 빠져 들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북한의 또래 친구들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 평화 통일을 꿈꾸며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후8:14)'는 성서의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

Y가 만나는 세상 / 가정의 달 5월, 북한어린이 돕다

한국YWCA북한어린이돕기 모금사업단은 5월 15일 명동 한국YWCA연합회 회관 앞에서 '북한어린이돕기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명동의 직장인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맛있고 풍요로운 점심을 먹으러 분주하게 걸어가 는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많은 시민들은 북한어린이가 분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후원을 하고 북한어린이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세상을 향한 희망의 날개짓, YWCA 키다리

지난 3월 30일에 있었던 2013년 키다리학교 입학식 이후 학생들은 키다리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키다리학교가 열리는 고양, 광주, 대전, 서울, 안양, 청주Y를 둘러보았다. (정리: 편집실)

고양Y 오수현 간사

고양Y 키다리학교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평화' 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키다리들이 기획하는 '평화 축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키다리들의 투표로 축제의 이름이 'PEACE를 향해~' 로 결정되었다. 모든 활동의 주체는 키다리아기 축제의 A부터 Z까지 학생들이 준비하였다. 축제 준비는 홍보미디어팀, 진행팀(무대 공연 및 순서), 기획팀(참여부스)으로 나누어 키다리들이 하고 싶은 팀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팀별로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발표를 통해 공유하였다. 키다리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고 움직이고 즐겼다. 평화 축제는 15개의 댄스, 사물놀이 팀의 공연, 게임, 평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참여부스 등으로 이루어졌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평화 축제는 키다리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반기에 있을 평화 캠프와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광주Y 박승희 간사

광주Y 키다리학교는 '생명' 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배우며 생명감수성을 키워가고 있다. 광주Y 키다리학교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기' 둘째는 '키다리 학생 99%가 이끌어가고 지도자는 1%만 참여' 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키다리학교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배

우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첫 번째 회의에서 '생명' 이라는 큰 주제로 마인드맵을 펼치며 '장애인 인권' 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배워볼 것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1년 간 장애인 관련 서적과 영화 감상, 수화 배우기, 수화 공연, 장애인 인권 캠페인 등을 하기로 하였다. 다섯 명의 키다리들이 서툰 걸음마 단계를 지나 키다리아저씨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대전Y 안성현 간사

대전Y 키다리학교는 '꿈 · 진로 찾기, 사회문제 관심 갖기' 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Y 키다리학교는 여덟 명의 키다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전Y 키다리학교는 처음부터 학생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대전Y 키다리학교에서는 키다리학교 1년 계획을 세우고 '꿈 찾기' (과거의 꿈, 현재의 꿈 비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찾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실천방법 찾기, 꿈을 위한 나의 실천과제), 환경운동 계획(거리 쓰레기 문제 해결), 꿈 · 진로 특강을 하였다. 대전Y 키다리학교는 키다리들이 꿈을 이루는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키다리들 스스로는 훗날 자신들이 멋진 리더가 되어 키다리학교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웃으며 뿌듯하게 기억할 것 같다고 말한다.



평화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고양Y 키다리



'생명' 을 주제로 마인드 맵을 그려보고 있는 광주Y 키다리

서울Y 김윤희 간사


서울Y 키다리학교는 '뚜벅이 청소년들이 지하철과 함께 떠나는 인권여행' 이란 주제로 '인권' 이란 무엇인지 배우고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12명의 키다리 학교 학생들은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 등을 스스로 찾아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첫 모임 때 앞으로의 활동과 규칙에 대해 회의를 하면서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세계인권선언문에 대해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권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현재 세 개 조로 나뉘서 세계인권선언문을 공부하며 팀별로 발제를 준비하여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인권선언문 30조 중 15조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 하반기에는 세계인권선언문 발제를 마치고, 인권과 관련된 곳을 여행할 예정이다. 또 고양과 안양 키다리들과 함께하는 여행도 준비 중에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안양Y 최정근 간사

3월 3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키다리 1기와 2기가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안양Y 키다리 평화원정대! 안양Y 키다리 학교는 '평화' 를 주제로 평화의운을 확산해가고 있다. 평화는 나부터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4월 본격적인 모임 활동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펼친 활동은 감사 표현하기였다. 키다리들은 카네이션 볼펜을 만들어 편지와 함께 가족,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았다. 그리고 키다리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함께하기 위

한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캘리그래피 손글씨를 배워 직접 써보기도 하였다. 안양Y 키다리학교는 키다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난타동아리도 운영한다. 몸으로, 소리로,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한다. 하반기에는 키다리들의 평화퍼포먼스 난타 공연도 준비 중이다. 앞으로 나와 너,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해나갈 안양Y 키다리들이 기대된다.

청주Y 김희진 간사

청주Y 키다리학교 동아리 '키 · 동' 은 인권, 탈핵, 안전한 먹을거리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청주Y 여성종합상담소와 함께 인권을 주제로 통합인권교육을 하였다. 키다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영상과 책을 가져와서 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하였다. 또한 배우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주변의 소수자들과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인권지킴이단' 을 구성하여 청소년안전지도를 제작하였다. 키다리들은 "그동안 나와 관련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평소에 인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통합인권교육을 통해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가장 약한 사람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라는 말을 새기며 오늘도 청주Y 키다리는 주변의 소수자를 보살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정의운동

글 | 최만자 (여성신학자, 연합회 아카데미 위원)

성서 하나님의 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운동

에큐메니칼 정의운동은 기독교 신학적 근거와 선교정책에 기반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 신학과 선교정책은 인류 사회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상황과 관련성을 가진다. 에큐메니칼 정의운동의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약한 자들을 편들고 돌보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힘 없는 약자들을 자신과 완전 동일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하나님 나라 질서)’가 절대적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장 낮은 이들에게 얼마나 햇빛이 돌아갈 것인가를 기준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평가하게 되며, 정의로운 사회의 이상은 모든 인간의 인권, 평등, 자유, 행복이 보장되는 세상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다.

선교개념과 패러다임 전환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의 태동이 세계교회들 간의 선교 활동 일치와 협력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초창기 선교의 개념은 개인의 회심과 경건을 중심으로 개교회의 개척과 성장에 일차적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악행 혹은 죄의 문제가 정의에 관련된 관심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점차로 WCC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전한 ‘삶과 봉사’ (Life and Work) 에 관한 대회들을 통하여 WCC의 선교 방향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WCC가 창립된 1948년 암스텔담 대회에서는 세계 1,2차 대전과 나치즘을 경험하면서 인류가 당한 억압과 고통과 불의한 세력의 횡포를 하나님의 정의로 극복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책임을 절감하였고,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억압과 또 그것을 벗어나

고자 하는 신생 독립국들의 고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교회는 이념을 초월하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교회일치와 선교와 동시에 ‘사회참여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가난이 개인의 도덕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의한 구조의 문제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그 운동의 중심에 두게 되었다. 이제 18-19세기의 복음전도 개념을 훨씬 넘어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차원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 인종문제, 경제구조의 문제 등 사회구조악의 개선 문제를 ‘선교의 개념’으로 포함시켜 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따라서 정의 운동은 사회구조적 불의를 극복하는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가톨릭, 복음주의 교회도 함께한) 에큐메니칼 정의운동의 ‘하나님의 선교신학’

1952년 빌링겐 대회를 거쳐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선교개념은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가톨릭 교회는 1962-1965년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제2의 종교개혁적인 ‘교회와 세계’ 관계 이해의 대전환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선교신학’적 차원을 이미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WCC 선교에 거부반응을 보이던 복음주의 세계대회인 로잔대회(1974)에서도 대폭 수용하며 하나님의 선교신학은 명실상부한 세계교회의 ‘대 사회적 책임 신학’으로 기독교 정의운동 정신의 절정을 보여준 신학이다. 복음주의자들도 종전의 ‘교회 대 세상’이라는 이분법을 지양하게 되었다. 가난의 구조악을 철저히 경험했던 남미에서는 결국 구뎬에레즈라는 신학자가 앞장서 ‘해방신학’을 발전시켰고, 기독교는 드디어 맑시

즘과의 대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정의’ ‘참여’ ‘지탱’의 신학 -

JPSS(A Just Participatory Sustainable Society)


대 사회적 책임의식은 과학 기술의 발전, 유전공학 발전, 그리고 지구환경 악화의 영역에 대한 정의운동으로 확장되었다. 과학기술과 유전공학 등은 인류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윤리적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WCC 총회는 JPSS를 WCC전체의 목표로 내세웠다. ‘전 복음’ ‘전 인격’ ‘전 교회’를 ‘전 세계’로부터 격리시킬 수 없었고 구조악의 문제를 읍살라보다 더 심각하게 논의하였다. 1974년 부카레스트(루마니아)에서 이런 위기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지탱될 만한 사회’ (Sustainable Society)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1975년 나이로비 대회는 이를 수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정의’ ‘참여’ 그리고 ‘지탱’이라는 개념 JPSS(Justice, Participation, Sustainability, Society)에서 지구 존속을 위한 정의문제에 관심 갖고 온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있는 참여와 실천을 촉구한 것이다. 모든 과학기술, 유전공학 등의 발전과 개발은 더 이상 인간의 탐욕이 아닌 생존 유지의 차원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긴박한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지탱될 가능성’은 ‘제한발전’, ‘제한 성장’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발전’에 의해서 지탱 가능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 것을 말한다.

21세기 에큐메니칼 정의운동의 과제 - 창조질서의 보전, 경제정의, 생명 정의 운동

사실 ‘정의’ 이슈는 WCC 창립 이래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 관심사로서 WCC 현장에 명시되어 있는 WCC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1966년 제네바의 ‘교회와 사회’ 세계대회와 1968년 읍살라 때 ‘정의’ 추구의 긴급성이 일어났고 1970년대 ‘해방신학’을 거쳐 정의운동이 발전되었다. 1975년 나이로비 대회에서는 ‘정의’를 제3세계의

저개발과 가난을 중심으로 보면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정립하였고, 이같은 부정의의 상황이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정의는 항상 평화개념과 짝을 이루며 발전하여 왔고, ‘정의’와 ‘참여’를 인종주의, 여성차별, 인권 문제 등으로 확장 시켰다.

그러나 1970년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생태적 위기 현상은 드디어 1983년 밴쿠버 총회에서 JPSS에서 JPIC(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로 전환하게 되었다. 밴쿠버 총회는 JPIC가 단순한 사회윤리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전 WCC회원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 및 온 인류의 과제라고 천명한다. 그간 발생했던 세계적인 사건들 - 체르노빌(기술재난)원전사고, 태평양 핵실험, 중독성 산업쓰레기, 핵에너지, 이상기온과 적도지역의 원시림 파괴, 자연 파괴 등으로 인한 총체적 위협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는 신앙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진지하게 논의된 ‘창조신학’적 입장은 ‘복음을 개인 영혼구원에만 국한하고, 세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않은 것’ 등에 대한 회개와 창조질서의 보전으로서의 생태문제를 인식할 것에 대한 촉구를 명시한다.

21세기는 생태학적 위기, 사회정의의 위기, 경제정의의 위기가 맞물려 있음으로 JPIC 신학과 운동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제 에큐메니칼 정의운동은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앞에서의 철저한 경제정의를 이루는 것과 핵의 위협 앞에서의 ‘생명정의’를 외침과 아울러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에 대한 자각과 윤리적 회심을 요청하는 운동으로 나아갈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교회의 신앙, 정치,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책들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재조정하여, 성경공부, 교리교육, 찬송, 예전, 기도 등에 JPIC 신학을 반영해야 한다. 생명이 지탱되는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JPIC 과제는 ‘생명의 시여 자시여, 당신의 창조세계를 지탱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 응답하는 경제, 정치, 사회, 및 생태학적 구조의 변혁이다’라고 말하는 이형기 교수의 주장을 기억하게 된다. 

故 박영숙 선생 추모사

글 | 김형 (연합회 부회장)



영정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시는 선생님께 추모의 인사를 드리게 되니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할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몇 년 전, 선생님께 YWCA가 한국여성지도자상을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는 한국Y에서 받은 훈련이 선생님께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그래서 Y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겠노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게 되니 더 많은 일들을 선생님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나 큼니다.

선생님은 한국전쟁이 온 나라를 휩쓸고간 50년대 중반 이화여대에서 수학하시던 시절 YWCA를 만나셨고, 한국사회의 재건을 위해 Y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시고 졸업과 함께 Y 실무활동가로서의 삶을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올바른 가치관과 비전을 가진 청년들을 키우고, 활동의 장을 열어주고 지원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으셨음을 저희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3년 이희호 선생님의 뒤를 이어 한국YWCA연합회의 총무로 취임하신 선생님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고 따뜻하면서도 엄격하셨습니다. 여성들의 문제에 Y가 적극 나서서 선구자적 여성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Y 활동의 핵심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여성 지도력, 특별히 청년들의 리더십양성과 소외받는 이들의 인권회복에 두고, 항상 앞장서 행하셨습니다. 임기를 마치신 후에는 더 넓은 사회로 나가셔서 환경운동가로, 인권운동가로, 정치인으로 헌신하시면서 Y의 운동과 바른 역할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48년 전 제가 처음 서울Y에서 실무활동가로 일할 때 연합회의 총무로 처음뵈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소신있고 덕있는 여성운동가의 모습이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Y 밖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서 탄압받은 운동가의 가족으로 선생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저의 남편이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던 구속자가족들을 고 안병무 박사님과 함께 돌보시면서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정치인으로서도, 운동가로서도, 투쟁을 앞세우기보다는 따뜻한 밥을 우선 챙겨 먹이시는 살림꾼이었습니다.

선생님, 참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올곧게 행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세상이라는 믿음으로 한 평생을 사셨고, 교회를 통해, 단체들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선생님은 참으로 복된 신앙인이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신 선생님,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선생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도록 지켜 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소망하셨던 정의와 평화, 생명살림의 하나님나라를 위해 남아있는 후배들이 힘을 모아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어주신 끈을 놓치지 않고 이어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선생님을 사랑하는 Y가족들을 대표해서 부회장 김형 인사드립니다.

공간주권으로의 초대

SSK 공간주권 연구팀 (역음) / 한올아카데미 /

2013년 04월 26일 출간



『공간주권으로의 초대』는 공간 개념을 주권 개념과 결합하여 ‘공간주권’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 혹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이 전개되는 공간에 대해서도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부각한다. ‘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공간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데에 최고의 권한을 갖고 책임감 있게 지속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함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당신으로 충분하다

정혜신 / 푸른숲 / 2013년 6월 15일 출간



이 책은 ‘내 마음 보고서’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이 개발한 개인맞춤형 심리분석 프로그램) 결과 가장 평균적 모습을 보인 30대 여성 4명과 정혜신 박사가 6주간 진행한 집단 상담을 토대로 했다. 기존의 심리서가 특정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법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 책은 상담참석자들이 자기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덮어둔 상처를 용기 있게 대면하며 치유에 이르는 상담실 풍경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힐링 루키즘 심리학 외모를 부탁해

이정현 / 경향BP / 2013년 6월 2일 출간



자존감 회복을 위한 치유 테라피 『힐링 루키즘 심리학 외모를 부탁해』, 외모 지상주의의 사회에서 심리학을 통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다. 거식증, 폭식증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외모보다 중요한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려준다.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심리를 되돌아보는 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말하며, 와닿지 않는 위로의 말이 아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공정 무역 행복한 카카오 농장 이야기

신동경 글 / 김은영 그림 / 사계절 / 2013년 5월 30일 출간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정 무역’에 대해 배우는 『공정 무역 행복한 카카오 농장 이야기』, 가장 모범적 공정 무역 생산지의 사례로 꼽히는 아프리카 가나의 쿠아과 코쿠 협동조합의 사례를 들려준다.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값을 지불하는 등의 무역 체계를 정립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자는 뜻에서 확산되는 새로운 운동인 공정 무역에 대해 배우게 된다.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와 정겨움이 묻어나는 그림을 통해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연합회 소식

6월 월례아침기도회



연합회는 6월 3일 오전 7시 30분 월례아침기도회를 열었다. '예수의 마음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YWCA 생명운동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사무총장 연수

5월 20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신임사무총장 연수가 있었다. 새벽종소리를 교재로 한 영성훈련, YWCA 운영 및 행정 이해, 사무총장 역할 이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연수에는 정재연(김해Y), 손애령(남양주Y), 권순형(원주Y), 한윤덕(여수Y)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YWCA 대안학교 TFT 워크숍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YWCA 대안학교 TFT 워크숍이 있었다. 대안학교 현황 및 운영 과정 공유, 모금전략워크숍 참관, YWCA학교 설립을 위한 워크숍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연합회 Y아카데미 김은경 팀장 외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은학의 집 개관 13주년 감사예배

5월 14일 은학의 집 은학홀에서 은학의 집 개관 13주년 감사예배가 있었다. 기념예배와 어르신



활동 사진 전시가 있었다. 이날 은학의 집 운영위원, 복지사업단 사무국 실무자, 은학의 집 어르신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원YWCA 모금전략수립 2차 워크숍



5월 23일 연합회 강당에서 모금전략수립 2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회원 Y별 사업목표 및 달성을 위한 내·외부 장애요인 분석, 모금목표 설정의 방법과 내용, 잠재기부자 개발 등 모금전략의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원규(주)도움과 나눔 부대표가 진행하였으며 고양, 부천, 성남, 안산, 파주Y, 한국Y 북한어린이돕기 사업단 등 총 40명이 참석하였다.

'가정의 달, 북한어린이와 함께 해요' 거리 캠페인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사업단은 5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YWCA연합회 회관 앞에서 '가정의 달, 북한어린이와 함께 해요' 거리 캠페인을 하였다. 북한음식 두부밥 체험, 우유팩저금통 배부, CMS신청서 배포 등 한국Y 북한어린이돕기 운동 홍보 및 모금을 하였다. 이날 53만 원이 모금되었다. (자세한 내용 P.6~)

제2차 YWCA 생명포럼

5월 30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2차 YWCA 생명포럼이 있었다. '일상의 생명감수성 다지기'를 주제로 박경미 교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와 김명희 박사(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정책부장, 의사, 보건학 박사)의 주제 강연이 있었다. 이후 모둠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 P.12~)

YWCA복지관 및 자활센터 기관장연구모임

YWCA복지사업단 주관으로 6월 12일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및 자활센터 기관장연구모임이 있었다. 이날 연구모임에서는 관장, 센터장, 연합회 실무자 등 14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기관의 현황 공유, 8월에 있을 직원 연수를 계획하였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주간 기도회 및 대안성지순례 심포지엄

5월 28일 연합회 강당에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주간 기도회 및 대안성지순례 심포지엄이 있었다. '한국교회 성지순례 문제점과 대안 성지순례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최창모(건국대, 중동연구소 소장) 교수의 발제,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유시경(NCCK 국제위원), 원영희(한국Y 국제팀 팀장), 최소영(여성협 공동대표), 정원범(대전신대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팔레스타인 평화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예큐메니칼 평화 컨퍼런스 참가

연합회 차경애 회장은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미국연합감리교회(UMC) 주관으로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예큐메니칼 평화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평화합정을 비롯한 한반도 이슈 관련 토론과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 P.16~)

등 정

- 김수연 청소년협력사업팀 간사 채용 (2013. 5. 1)
- 한송이 연합회 회계팀 간사 채용 (2013. 6. 1)
- 조혜원 통영YWCA 사무총장 취임 (2013. 4. 1)

복부

서울YWCA

박서영 간사

걷기축제

서울Y '2013 시민건강 걷기축제'가 5월 25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남산공원에서 열렸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하프코스(왕복 3.5km)와 완주코스(왕복 7km)로 나누어진 남산순환로를 걸었다. 바람개비 존, 댄스 존, 포토 존 등도 마련하였다. 서울Y와 함께 가족, 연인, 친구들이 축제를 즐겼다.

Y-틴·대학Y 연합인준식



서울Y는 5월 11일 강당에서 Y-틴·대학Y 연합인준식을 가졌다. Y-틴, 대학Y 인준식은 YWCA 청소년 회원으로서 공식 인준을 받음으로 Y 회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함찬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인천YWCA

이하나 간사

행복벽화 그리기



인천Y는 5월 25일 다문화가족 20여명과 포스코패밀리 인천 봉사단, 인천 동구청과 함께 행복벽화 그리기를 전개하였다.

공가(空家)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멋스런 벽화를 그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다. 트릭아트 스타일로 기린의 모습을 담은 벽화가 완성되었다.

강릉YWCA

김미란 간사

의류수선사 양성 교육

강릉Y는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의류수선 전문직업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강릉Y는 5월 31일 강릉경찰서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고문희 회장과 강릉경찰서 정인식 서장의 인사말에 이어 감시단증을 전달하였다. 이날 강릉역 주변 업소를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과 홍보물을 나눠 주며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속초YWCA

백수미 간사

다문화 어울림장터



속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31일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다문화가족여성들의 어울림장터를 열었다. 다문화가정여성들이 베트남 월남쌈과 필리핀 잡채를 요리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었고 아나바다장터를 열었다.

춘천YWCA

진소정 간사

애들아 함께 밥먹자 캠페인

춘천Y는 5월 24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애들아 함께 밥먹자 캠페인을 하였다. 아침밥 먹기와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알렸고,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도 진행하였다. 이날 학생들에게

나눠 준 삼각김밥 만들기에 20여명의 중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였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



춘천Y는 4월 20일 '학교폭력 없는 춘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을 벌였다. 150여명의 청소년이 강당에 모여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춘천 명동에 나가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예방을 호소하는 가두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경기

남양주YWCA 이종은 간사

성폭력예방강사반 교육

남양주Y는 5월3일부터 6월1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성폭력예방 강사반 교육을 하였다. 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전문성 있는 교육을 통하여 성폭력 예방강사를 양성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키워나가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에는 총 33명의 여성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이사·실무자 연수

부천Y는 5월 7일, 6월 4일 두 번에 걸쳐 부천Y 이사·실무자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천진 목사(공정교회 담임)의 '새벽종소리' 강의로 YWCA 목적문의 의미, YWCA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돌봄회원 봄나들이

부천Y는 5월 25일 돌봄회원 봄나들이가 있었다. 최순영 이사



와 실무자를 포함하여 30여명의 돌봄회원들이 춘천제이드가든을 다녀왔다. 자연 속에서 숨을 얻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안산Y는 6월 4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강당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개회예배에 이어 박성순 회장의 'YWCA 회원증모와 회원운동의 방향'에 대한 특강과 주미희 이사과 홍지인 간사의 회원증모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부서별로 전략 수립 워크숍이 이어졌다. 올해 회원증모운동은 1인 5명씩 증모를 목표로 7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개관



안산Y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19일 2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원스톱지원기관으로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아동센터, 육아정보나눔터, 다문화카페, 언어발달실 등의 시설로 이

루어져있다. 이 공간이 다문화가족 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안양YWCA 김희정 간사

성인클럽임원훈련



안양Y는 5월 24일 임원훈련을 진행하였다. 성인클럽에는 합창단, 토피어리, 청실홍실, 아기별, 장미회, 탄생회 등 6개 클럽이 있으며 클럽임원 30여명이 참여하였다. 임영숙 회장의 'YWCA 지도자의 사명' 주제 강연이 있었고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Y-틴 난타동아리

안양Y는 '청소년평화의 울림, 두드림 그리고 나눔'이라는 주제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난타동아리 활동을 진행한다. 난타에 대한 이해부터 북 설명, 북채 잡는 방법 등 기초과정과 기본리듬, 난타 작품배우기를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Y-틴 난타공연으로 평화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미술동화구연가 양성교육

의정부Y는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술동화구연가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본 교육 이수 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

파주YWCA 이정심 간사

파주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식

파주Y는 5월 21일 '파주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식을 하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으로 운영되는 돌봄센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



다. 만 2세부터 취학 전 아동 중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다자녀·맞벌이가정의 아동 20명을 선정하여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부

대전YWCA 강은혜 부장

에너지 절약 학교



대전Y는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기후에너지지도자 심화과정 및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학교' 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25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대전시 환경교육 정책 방향 및 환경운동가 역할, 개인별 교안 제작,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의 대안, 지역에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교육 수료생들은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학교 교육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청주YWCA 박보람 간사

회원증모운동 1차 보고회

청주Y는 5월 23일 회원증모운동 1차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5월 2일 발대식 이후 200여명의 회원증모 조원들이 적극적

으로 회원증도 활동을 펼쳤다. 목표대비(172,800천원 4,143명) 금액의 52.1%인 90,100,000원이 모금되었고 회원 수는 43.8%인 1,815명이 모집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25명의 조원이 회원증모운동의 다양한 사례들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스마트폰 강좌

청주Y 회원위원회는 5월 9일 청주시민과 청주 회원을 위한 스마트폰 강좌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한 인생 살기'를 열었다. KT IT 서포터즈의 강의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수업과 실습으로 구성하였다.

충주YWCA

김애영 부장

실내환경미화원 교육

충주Y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위하여 실내환경미화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17명의 교육생이 수료한 이번 교육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역할 및 필요성, 세균과 악취제거, 건물환경 관리의 이해, 산업안전교육 등의 직무교육을 진행하였다.

결혼이민여성 문화체험 활동



충주Y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28일 결혼이민자 47명과 함께 문화체험 활동을 하였다. 제천 청풍문화재 단지를 다녀오면서 한국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서비스를 지공하고자 한다.

논산YWCA

김화선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논산Y는 5월 14일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 라는 주제로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안양Y 박동순 사무총장의

'회원증모와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주제 강연 이후 회원증모 조직구성 및 세부일정과 계획을 세웠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사, 위원,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발대식 이후 이사 및 위원1명과 실무자 1명이 조를 만들어 릴레이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YWCA

홍진영 팀장

세종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

세종Y는 6월 3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을 하였다. 새일센터는 세종시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공동 지정하고, 세종Y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새일센터는 맞춤형 직업상담 및 여성유망직종 직업훈련, 찾아가는 취업설계, 동행면접, 인턴제 운영 등으로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다가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안YWCA

이연주 간사

창의적체험활동 협약식



천안Y는 4월 23일 천안여자고등학교, 천안신당고등학교, 계광중학교와 창의적체험활동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식을 통하여 공주대학교WSET충남지역사업단이 과학실험 및 강의를 지원하고, 천안Y 환경강사가 4개 학교 125명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강의를 진행한다. 5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천안Y는 천안시 성평등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으로 6월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물과 음식물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음식물종량제에 발맞춰서 환경에 대한 의식고취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을 한다. 또한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EM을 이용해 퇴비로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익힘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한다.

| 서부

광주YWCA

김해정 간사

알뜰결혼 및 영호남화합 혼인정책세미나

광주Y는 5월 21일 제19회 부부의 날 기념 '알뜰결혼 및 영호남화합 혼인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윤순 광주Y 부회장의 기도, 최양님 광주Y 회장의 인사말, 송광운 북구청장의 축사에 이어 '알뜰결혼 및 영호남화합 혼인정책'이라는 주제로 권재도 사무총장(부부의날 위원회)의 강연이 있었다.

5·18기념 주먹밥 나누기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광주Y는 5월 30일 수피아여고에서 5·18 민주항쟁기념 주먹밥 나누기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Y 회원 및 자원봉사자가 만든 주먹밥과 음료 1,700여개를 수피아여고 학생에게 나누어 주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먹밥 나누기 재연을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5·18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강한 식습관과 아침식사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전주YWCA

김은진 부장

청소년유해환경근절 선포식

전주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5월 3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유해환경근절 선포식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을 가졌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문성 확대와 전라북도와의 연대를 통한 청소년유해환경근절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이날 김완주 도지사, 도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북한어린이돕기

전주Y는 5월 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제2회 전북여성젠더축제에서 '북한어린이 사랑의 분유보내기' 캠페인과 모금운동을 펼쳐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광양YWCA

추효인 간사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광양Y는 5월 29일 광영중학교에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사 및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주먹밥과 음료를 나누어 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렸다. 더불어 북한어린이들의 생활을 알려 분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다.

목포YWCA

곽수현 부장

탈핵실천에너지 캠페인



목포Y는 6월 1일 평화광장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서 탈핵실천에너지 캠페인을 벌였다. 김애자 회장, 목포Y 이사, 실무자, 대학Y, Y-틴 등 60명이 함께하여 핵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거리 캠페인과 홍보 판넬 전시를 하였다. 이날 시민들에게 핵과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알렸다.

순천YWCA

신현아 간사

서부지역위원회

순천Y는 5월 23일 서부지역위원회를 가졌다. 예배를 시작으로 '정책교육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주제로 회의를 하였다.



이후 순천정원박람회 나들이를 하였다. 이날 총16명이 참석하였다.

여수YWCA 박진희 간사

창립 31주년 감사예배



여수Y는 5월 24일 창립 3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호운 목사(여수 중앙교회)가 인도하였으며 이사·위원 및 회원들과 각 부속기관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3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 여수Y 가족들은 그 동안의 수고에 서로를 격려하고 여수Y 역사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익산YWCA 전혜영 간사

결혼이주여성과 시민이 함께 한 문화체험

익산Y는 익산시 여성발전기금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5월 2일 결혼 이주여성과 시민이 문화체험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익산에서 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이주여성 20명과 회원 25명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제주YWCA 장진우 간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포럼

제주Y는 6월 4일 제주Y 강의실에서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장, 제주MBC PD, 제주지방경찰청 경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이 참석하였다.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주제 발표와 '행복 공동체 허브와 함께 출발' 사례발표가 있었다.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우리아이 진로설계 개강



서귀포Y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워킹맘&자녀, 통하래! 우리아이 진로설계'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5월 25일 서귀포Y회관에서 30여명의 워킹맘과 자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워킹맘의 자녀교육 부담 완화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자녀 진로문제 해결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프로그램은 6월 13일까지 진행한다.

동부

대구YWCA 김세형 차장

EM홍공 던지기



대구Y는 6월 19일 연경저수지에 EM홍공 투척활동을 진행했다. 대구Y는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와 함께 매년 4~5차례 단산저수지와 연경저수지에 EM홍공 투척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수지의 수질이 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투척활동에는 EM생명봉사단, EM전문가 교육생, 대구YWCA 이사·위원, 실무자, 농어촌공사 지사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한다.

부산YWCA 박지영 간사

새터민돕기 아나바다 바자회



부산Y 새터민지원센터에서는 5월 25일 부산 대우백화점 광장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아나바다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새터민, 부산Y 회원, 직원, 자원봉사자, 대우백화점과 함께한 이날, 북한음식체험, 문화공연, 물품바자회, 체험코너를 진행하였다.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새터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학교폭력 대안적 방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부산Y는 5월 31일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방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학·폭의 신'을 개최하였다. 학교 폭력에 관한 정책을 되돌아보고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대안적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강의는 마을공동체연구소의 문재현 소장이 '학교폭력예방과 평화샘프로젝트' 내용을 강의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부모 및 관련기관, 부산Y 회원 등 80명이 참석하였다.

포항YWCA 황혜민 간사

친친 공감프로그램

포항Y는 5월과 6월 매주 월요일 오전 포항 대도중학교 1학년 11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친친 공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생활과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존감 향상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주며 스트레스 완화를 목표로 한다.

거제YWCA 김의향 팀장

아나바다 장터

거제Y는 6월 1일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다.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장터에는 이사, 실무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장터에 참여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

거제Y는 5월 14일 연초고등학교 학생 1,300여명을 대상으로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펼쳤다. 거제Y가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스티커 설문조사 결과,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늦잠' 이었고, 인스턴트 식품 중 가장 많이 먹는 음식으로는 라면으로 나타났다.

김해YWCA 배정숙 실장

안전한 먹을거리 시민교육

김해Y 사회문화부는 6월 3일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시민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임농산물과 로컬푸드 '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김정란 상임이사(아이쿱 김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 강사로 초빙되어 강연을 진행하였다.

학교폭력예방 강사 양성교육

김해Y 교육부는 6월 4일 학교폭력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개강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초 이해, 자기이해를 통해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총 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본 교육 수료 후에는 지역 내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강사로 파견된다.

사천YWCA

박양성 간사

애들이 밥 먹자 캠페인

사천Y는 5월 22일 삼천포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와 사천시 보건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식사를 제공하며 우리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했다.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사천Y는 5월 27일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YWCA회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강화와 회원운동체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작년 대비 회원 수와 회비 상향을 목표로 하였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 미술심리상담사 교육



양산Y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을 운영하였다. 기본 이론과 소양 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었다.

진주YWCA

김태진 간사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아카데미

진주Y는 6월 5일부터 29일까지 주 2회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후변화 시대에 가정에너지 절약의 중요성 및 생활 속 탄소줄이기, 기후변화

와 에너지 문제에 관한 내용 및 재활용 처리시설 견학 등 총 8강으로 진행된다. 총 3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출석률 80% 이상 수료 시, 지역 내 어린이와 주부모임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학대예방 교육-너와 나의 권리 이야기

진주Y 난쟁지역아동센터는 5월 31일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예방교육 '너와 나의 권리이야기'를 진행하였다.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증모 대원 교육

진주Y는 5월 27일 사천Y와 공동으로 회원증모 대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이천진 목사(공정감리교회)의 강연이 있었다. Y의 회원증모운동이 사회변화를 위한 일꾼을 찾아 성장시키는 운동,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운동, Y가 생명력 있는 회원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운동으로써의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창원YWCA

황은진 간사

제19회 부부의 날 기념행사



창원Y는 5월 21일 제19회 부부의 날 기념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세미나와 리셉션을 진행하였다. 이사, 위원, 회원 부부 25쌍이 모여 러브레터 교환, 부부사진 촬영 및 전시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창원Y는 생명운동, 평화운동과 더불어 가정을 살리고 건강한 부부 만들기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교육부인가 정규 4년제 대학교

콘텐츠가 강한
승실사이버대학교

성공하라, 콘텐츠의 힘으로!

나는 직장인, 승실의 콘텐츠로 인생 2막을...
나는 주부, 승실의 콘텐츠로 잊었던 꿈을...
나는 고등학생, 승실의 콘텐츠로 새로운 도약을...

'승실의 콘텐츠'로 '내 인생의 콘텐츠'가 강해졌다.



201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 2013년 6월 1일(토) ~ 8월 19일(월)

승실사이버대학교 7Merits

- 1 승실대와 학점교류 및 캠퍼스(도서관, 강의실 등) 공유
- 2 재학 중 모든 과목, 졸업 후 전공과목 평생 무상청강 서비스 제공
- 3 콘텐츠 품질 인증 및 다양한 단기 교육과정 개설
- 4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수업 가능
- 5 사이버대학 최고수준의 다양한 장학 혜택(전체 재학생 대비 61%)
- 6 승실대, 연세대 등 71개 오프라인 대학과 온라인 학점교류
- 7 콘텐츠/시스템/기관 부문 다양한 수상 및 인증

모집학과

- | | |
|--------------------|--------------------|
| 어문·유언서비스 계열 | 정보·사회·안전 계열 |
| • 방송문예창작학과 | • 디지털디자인학과 |
| • 실용영어학과 | • 정보보안학과 |
| • 중국언어문화학과 | • 컴퓨터정보통신학과 |
| • 사회복지학과 | • 경영학과 |
| • 상담심리학과 | • 부동산학과 |
| • 아동학과 | • 세무회계학과 |
| • 평생교육학과 | • 엔터테인먼트학과 |
| | • 법학과 |
| | • 소방방재학과 |



승실사이버대학교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입학상담 : ☎ 02) 828-5501 <http://go.kcu.ac>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9 승실대학교 미래관 승실사이버대학교

